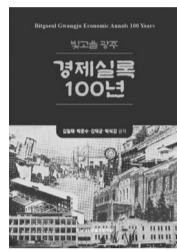


광주 경제사 100년 집대성...언론·학계서 변천사 담아

빛고을 광주 경제실록 100년
강덕균 외 3인 | 전남대출판문화원 | 1만 7100원



지난 100년의 광주 경제·산업사를 조망한 책이 나왔다. 근대화 여명기 1900년대부터 인공지능(AI) 혁명에서 있는 현재까지 지역의 경제·산업 변화와 발전 궤적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책을 집필한 4명의 공동저자는 강덕균 전 전남일보 편

집국장을 포함해 박준수 KBC광주방송 선임기자, 김일태·박석강 전남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간 학계와 조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통계자료 기반의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를 넘어 선형적 기술로 차별화하고자 했다. 공간과 시간적 좌표를 축으로 통시(通時)적인 관점에서 광주경제 발전의 전개 과정을 깊이 있게 설명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 시대별 주요 이슈와 인물 중심으로 연대기적 구성을 채택해 가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책은 경제·사회사적 변화 과정에 초점

을 맞춰 모두 7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일제강점기 광주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에 맞서 형성된 근대 민족자본과 상업 활성화를 다뤘고 제2장은 1950~60년대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 공장 설립을 주축으로 광주공업단지 조성, 광주연초제조공장 유치, 광주은행 설립 추진을 소개한다.

제3장은 1970~80년대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으로 본촌, 송암, 하남공단이 착공되는 모습을 되돌아 보고 제4장은 1990년대 IMF 구제 금융을 벗어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어 제5장은 2000년대 글로벌경제 시대 한국전력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광산업, 디자인, 첨단부품소재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KTX 개통과 지하철 시대의 도래를 조명하고 제6장은 2010년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고도화를 통해 수출선도형 생산도시로의 도약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미·중 패권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가동,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노력을 기술한다.

작품에서는 이 밖에도 종합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의 역할과 역대 회장들의 성과를 반영해 역동적인 광주 경제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특히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불균형 성장 전략하에서 광주상공회의소가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을 전개한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았다.

지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광주경제의 현주소와 위상, 비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기후악당이 된 대한민국...“지속가능한 여행 위한 대책 필요”

기후여행자
임영신 | 열매하나 | 1만6500원



“기후위기 시대, 현재와 같은 여행 문화가 지속해도 괜찮을까?”

바야흐로 대여행의 시대다.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지난 2023년 한 해 무려 2270만명에 달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400만명으로 나타났다. 명절이나 대체휴무 지정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지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영신 작가는 이러한 해외여행 홍수 속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 됐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실

제 해외여행이 가능한 인구는 불과 5%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도 일부 인구만이 해외여행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작가는 설명했다. 이처럼 여행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은 아니다. 여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다른 차별로 드러난다.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오는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른바 '기후악당'이란 꺼림직한 타이틀을 무작정 부정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광산업 비중이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저자는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지 못한 수많은 남반구의 사람들이 소수의 북반구 여행자들이 배출한 탄소로 치명적

인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비판한다.

이 같은 기후위기 시대 속 긍정여행, 책임여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행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기후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여행'은 여행을 통해 현지인과 여행자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지역과 장소를 함께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임 작가는 오버투어리즘의 지속은 여행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에는 기후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가 제시됐다.

처음에 낯설게만 느껴질 기후여행의 시작이 지구 온도 상승을 계속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게 어떨까.

박찬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시민 이야기
정주진 | 철수와영희 | 1만5000원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청소년 인문 교양 저서가 출간됐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왜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왜 난민을 비난하면 안 되는지 등 청소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계 안전·평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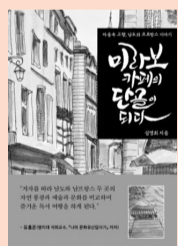
인터넷의 탄생으로 국적과 거리에 관계없이 소통이 가능해진 오늘날, '지구촌'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공존을 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부유세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연계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본다.



남도와 유럽의 풍광을 아우른 독서 여행

미라보 카페의 단골이 되다
심영희 | 중민 | 1만6800원



남도와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은 작가가 떠난 수필 형식의 기행문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접점을 대조하며 떠나는 독서여행이다. 작품은 독자들을 푸른 하늘과 붉은 땅이 공존하는 문화예술로 가득한 공간으로 이끈다.

심영희 작가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 미국 서던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 등을 취득했다. 이후 서른살의 나이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전남대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며 광주·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목도한다. 3년간의 광주 생활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은 물론 땅과 자연, 배려와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친밀감을 경험케 했다. 그렇게 남도와 인연을 맺은 심 작가는 2018년 남편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 엑상프로방스로 떠난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진정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남도에서 느꼈던 감정

과 별반 다르지 않은 친밀감이 그를 감쌌다. 마치 그곳은 심 작가에게 또 다른 고향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번 신간을 집필한 계기도 이 같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해남과 프로방스에서 조우한 도솔암과 달마고도, 생트빅투아르산과 카시스 해안절벽 등 자연풍광을 다루고 2부에서는 남도와 프로방스의 사찰과 성당을 소개한다.

이어 3부에서는 두 지역의 뛰어난 예술가들을 조명한다. 두 지역의 서로 다른 예술적 역사와 전통 속에서도 공통분모를 찾아내 설명한다.

4부 또한 이와 연계된다. 두 지역의 사람들과 성격, 먹거리 등을 살펴보고 길보기에 판이한 것들이 갖은 공통점 등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5부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프로방스의 슬픔과 고통이 뒤엉킨 역사의 뒷면을 관통한다.

국내와 해외를 아우른 문학여행이자 바쁜 일상에 힐링이 돼 줄 기행문. 고향의 친밀감과 프로방스의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동시에 품으며 저자가 직접 체험한 경험들로 차곡차곡 쌓아 온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책에는 그가 직접 그린 그림도 빼곡히 들어있다. 이를 통해 더욱 현장감을 제공한다.

박찬 기자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말콤 글래드웰 | 비즈니스북스 | 2만원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티핑 포인트'가 25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빅 트렌드의 법칙을 담아낸 전작은 경제경영의 바이블이라 불리며 대유행으로 퍼져 나간 바 있다.

이번 작품은 당시와는 변화한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탐구해 전달한다. 티핑 포인트가 일

어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해 실행하도록 이끄는 '소셜 엔지니어'의 존재와 이들의 비밀도 밝혀낸다.

저자가 비범한 필력으로 써낸 이들에 대한 해석들이 추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특히 많은 이야기를 통해 관습과 관행의 확산에 대한 견해를 전하며 위 주제를 심화한다.

어떤 패배의 기록
김향 | 창비 | 2만원



저자인 김향 교수는 그간 일본의 정치철학·문화이론을 넘나들며 다양한 영역을 연구해 왔다.

이번에 출간한 신간은 지난 2015년 나온 '제국일본의 사상'의 후속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상사를 '비평', '민주주의', '혁명' 등 세 가지로 분절해 해석한 연구성과를 써낸 작품이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전후 일본은 '패배'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전쟁에 패한 뒤 추구해 온 일본의 민주주의는 결국 과거의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그는 설파한다.

비평가들은 일본 정치계에서 개헌이 저지되는 이유는 뿌리 깊이 내재한 식민주의 사상과 이 밖의 요소들이 섞인 복합적 원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본에서 정치 혁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은폐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